

브레드너드의 생애와 일기 2



인디안 부흥운동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 ❖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죄를 깨닫게하는 데 매우 합당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철저히 초자연적이었다. 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다. 모든 면에서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않고 일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한 수단들을 내가 계속 사용하는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것들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550)

기독교 윤리

- ❖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알려 주고 아내를 버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아내가 부정행실을 했다면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버림받은 아내도 기꺼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했다. 더욱이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권위로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여인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 남은 생애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기꺼이 동의했다.

브레드너의 체험

- ❖ 최근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있기”를 갈망했다. 내 영혼은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옛 성도들과도 깊게 연합되어 있다. 특별히 내 영혼이 녹아서 엘리야, 엘리사의 영광 하나가 되어 있었다. (276)

인디언을 향한 사랑

- ❖ 오직 영혼들(인디언)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갈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난을 겪든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280)

천국을 향한 갈망

- ❖ 오, 내가 천국의 영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호흡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보다 더 낫다! 내 영혼은 죽기를 갈망했다. 이 둔감함과 황무함에서 벗어나 영원히 생명력 넘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같았다. 오! 삶의 무게여! 오, 죽음아, 내 다정한 지체여! 너는 서둘러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다오. 나를 영원토록 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다오! (297-98)

천국을 향한 갈망

- ❖ 극심한 피로와 이런 고난(병, 추위 등)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또한 천국을 더 달콤한 곳으로 여기게 만든다. ...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위로를 구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 지금은 전처럼 그런 고난들이 낫설지가 않다. 그런 고난의 시간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고난이 더 혹독할 수도 있었음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더 큰 고난이 나를 기다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내 여행의 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신다. (301)